

계란 우수성 TV 소비홍보 현장

계란을 매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KBS 2TV '비타민' 프로그램 방송 장면

계란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는 계란에 포함된 레시틴(아세틸콜린)이 뇌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계란을 매일 먹으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성장기 어린이 두뇌개발에 좋고, 성인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노인의 경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SBS TV, 계란 섭취가 기억력 집중력 향상 인체실험

지난 4월 26일 방송된 SBS TV 스페셜다큐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계란섭취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 12명이 계란 2개 분량의 레시틴을 섭취한 후 실시한 실험에서 집중력이 월등히 향상되었고, 기억력도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어 계란섭취와 두뇌발달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다.

젊은 사람에게 계란이 기억력이 향상되는 식품이라면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계란은 치매예방의 식품이다.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이미 계란이 치매예방식품

**건강을 낚는 금알, 계란
임산부! 태아의 뇌 기능발달!
유아! 두뇌 발달에 도움!
노인!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계란 소비가 많다.

일본은 계란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함량 증가와 무관함을 증명하

는 연구결과를 앞다투어 내놓은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성인병에 대한 걱정 없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1개 이상 먹고 있다.

또한 SBS TV 스페셜다큐에서는 인간의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계란이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산후조리 식품임을 소개하여 계란이 가장 저렴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완전식품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KBS 2TV, 계란은 두뇌활동 증진, 뇌세포 활성의 주역



계란에 대한 우수성 TV 방송은 SBS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22일에는 KBS TV 프로그램 '비타민' 위대한 밥상에서 계란에 대한 내용이 30분에 걸쳐 소개되었다.

뇌세포 활성! 매일 먹으면 두뇌활동 증진! 뇌의 먹이! 라는 주제 하에 계란과 두뇌의 연관관계를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한영실 교수가 출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영재교육으로 유명한 나라 이스라엘이 1인당 계란소비 1위 국가임을 소개하여 교육열 높은 우리 어머니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번 계란 홍보활동은 황금시간대에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높은 시청률의 건강프로그램 '비타민'을 통해 실시되어 계란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회는 계란이 완전식품 대명사, 두뇌활성화에 좋은 식품임을 홍보하면

서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를 가져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소비자의 오해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자조금사업팀)

